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흥겨운 율동 부처님오신날 축제 준비 OK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김정윤·김민성씨가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연등축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위). 연등축제 율동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사찰과 단체에 전해진다(왼쪽).



은 누구일까요?

부처님오신날을 두 달여 앞두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 이하 불레협)와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찬불 율동 녹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 그래 맞아, 그렇게!” “하하하하하” 이 날은 9곡의 찬불가에 맞춰 10가지 율동을 동영상으로 녹화했다. 율동은 5월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하고자 1985년 창립했다. 불레협은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불교 전법자 등 포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특히 불레협은 10년째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연등축제의 흥겹고 신명나는 대중율동을 기획하고 보급·지도하며 연등축제 율동리더로 참여하고 있다. 밝고 밝은 미소 속에서도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청년이 있다. 불레협 마스코트이자 막내인 김민성(20)씨다. 그는 올해 대학 새내기.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불레협에서 활동 중인 2대 불레협 율동리더이다. 어머니를 따라 불레협을 하게 된 계기 역시



“녹화 날인데 신경써야죠” 28일 아침부터 모인 불레협 회원들이 봉축 율동 녹화를 위해 대기실에서 꽃단장을 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온갖 꽃 피어나는 만 생명 축복의 날/ 오늘은 기쁜 날 남에게서 오신 날/ 별담은 새벽이슬 연꽃이 피는 날~”

열 가지 율동 홈페이지서 먼저 만날 수 있어

불레협, 연등축제 율동리더 20일까지 모집

색동저고리를 입은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날(풍경소리)’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 눈 앞에 펼쳐지는 역동적인 춤사위와 함께 땀냄새보다 강한 파스냄새가 코를 찌른다. 파스까지 불리고 춤추는 젊은이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다. 전혀 아파보이지 않는다. 진짜 ‘오늘은 좋은 날’인 듯한 이들의 표정은 막 피어난 봄꽃 향기가 난다. 정월대보름과 동안거 해제일이기도 한 2월의 마지막 날. 시린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온 불기운에 발걸음이 가벼워진 젊은이들이 조계사 앞으로 모여 들었다. 이른 봄날 친구들과 삼삼오오 교외로 떠나도 좋은 때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파스를 뿌려가며 율동을 하는 이들

열리는 연등축제를 비롯해 봉축기념 행사에서 선보일 것들이다. 만들어진 동영상은 불레협 홈페이지(www.burec.org, www.llf.or.kr)에 공개되는 한편, 각 사찰 관계자·실무자에게 전해지게 된다. 이날 율동에는 불레협 양성영 간사와 김정윤 이운진 진성철 윤상진 이경재 김민성 불자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의 직업은 대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하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탓에 퇴근 후 저녁 혹은 주말을 이용해 짬짬이 율동 연습을 했다. 어지간한 신심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불레협은 불교를 어린이

유난히 행복한 표정 만큼이나 유별나다. 김씨는 사춘기였던 고등학교 때 말수도 적었다. 부모님께서는 합합학원에 보내 달라고 보냈다. 그때 어머니는 “율동리더를 하면 합합학원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성씨는 합합학원이 가고 싶어 얼마 만에 이글러 불레협을 찾았다. 김씨를 만난 불레협의 형, 누나들은 막내라고 귀여워하고, 토닥이며 잘 이끌었고, 김씨도 그런 형 누나들을 잘 따랐다. 불레협에서 활동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김씨는 밝아지고 집에서도 잘 잠하는 아이가 됐다. 김민성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레협 활동을 한

후, 그야말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요”라고 흐뭇해했다. 불레협 양성영 간사는 즐겁게 공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2007년 연등축제 때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동국대 운동장에서 공연이 시작됐죠. 그곳을 가득 채운 사부대중이 우리 율동을 따라 하고 박소리가 딱딱 맞는데, 순간 힘들었던 것도 다 녹아 내렸어요.” 10여 년 동안 불레협을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한 이의 마음담다. 이런 열정적인 멤버들이 있음에도

불레협의 최대 문제는 율동리더의 모집이다. 특히 멤버들은 재직사찰 행사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불레협 행사와 겹칠까 노심초사하며 활동하고 있다. 올해 불레협은 연등축제 율동리더를 3월 20일까지 모집 중이다. 올해는 좀 더 많은 이들이 참가해 행복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즐거움의 챔피언이 되길 바란다. 부처님이 오신 좋은 날,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된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천
도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가려이 재형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원을 마음과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옥각돌**이 80℃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형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가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맘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